

제3발표논문(번역문)

일본의 유기농업 기준과 유기·친환경농업 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의 노력

徳江倫明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 부지부장, 農業食品監査시스템 대표

요 약

먼저 한국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데 대해 커다란 존경을 표한다. 특히 한국 유기농업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양평에서 이번 학회가 개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양평군이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도시의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들고 있다. 일본의 농민들과 소비자들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일 양국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싶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일본이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왔으며 공식적인 유기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I. 1960년대 이후 일본의 유기농업 도입 배경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전후 폐허된 사회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성장하는 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도시로 집중시키고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이 대량 생산된 물품의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부문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급속히 진전시켰다. 정부에서는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새로운 농기계와 화학물질, 새로운 기술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본의 농경지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해 크게 오염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농약 오염으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의사들이나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화학농법

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심한 공해로 인하여 “미나마따”, “요카이치 천식”, “이따이 이따이병”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1971년에는 농민, 의사, 학계가 한데 모여 일본유기농업협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농작물이나 채소 유통체계의 본류에 합류하지는 못하였다. 기껏해야 식품 안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일본유기농업협회의 주도에 의하여 “提携體系”라고 불리는 농민과 소비자간의 제휴체계(産消提携)가 형성되었다. 농민과 소비자들은 그들이 먹는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은 인적 신뢰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적인 관계만 존재하였을 뿐 공식적인 라벨이나 인증서는 없었다.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곡물이나 채소는 농민들이 소비자단체에 직접 배달하였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소속된 회원들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사와코 아리요시의 「複合公害」라는 소설이 출간되면서 농경지와 식품의 화학공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유기농산물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大地を守る會”, “일본농업공동체”, “빨란” 등과 같은 유기농 쌀이나 채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나 가정주부들은 제휴운동의 주요 소비자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많은 가구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유기농산물을 집단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1988년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밤중에 유기농산물을 상자 째 문 앞까지 배달하는 가정 배송업체인 “래디쉬(Radish) 보-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大地を守る會(地球保護會)” 등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단체들도 이러한 판매방법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러한 종류의 단체들은 일본 유기농산물 시장의 80% 가량을 장악하고 있었다. 일반 소비자들도 점차 유기농산물을 찾기 시작하고, 일반 농산물 제조업체나 슈퍼마켓이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규제나 표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제한된 시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기농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은 “유기농산물”, “저투입농산물” 등과 같은 표시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어떤 인증단체들은 그들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인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짜 유기농산물이 팔리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규격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되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일본농림규격(JAS)을 수정하여 유기인증에 관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약간의 조정기를 거쳐 2001년 4월부터는 공식적인 유기인증제도가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II. 일본농림규격(JAS) - 공식적인 유기농업 기준

일본의 공식적인 최초의 有機認證制度인 “日本農林規格(JAS) 有機認證” 제도가 2001년 4월부터 완전히 발효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약 700개의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JAS유기인증을 받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유기농산물 로고가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아직도 일본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음성적인 시장에서 개별 인증자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미 1950년에 “農林物資의 規格化와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법률(JAS法)”에 바탕을 둔 규격화와 표시제가 확립되어 일반 식품에 적용되어 왔다. 개정된 JAS法에 의하면 어떠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도 유기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登録認定機關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1년 6월 8일 현재 46개의 기관이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유기농산물 登録認定機關 승인을 받았다. 2001년 6월 1일 현재 일본에 있는 총 673개의 단체 또는 개인, 해외에 있는 71개 단체가 JAS유기인증제도에 승인을 받고 있다. JAS유기인증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농림수산성의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볼 수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inshitu/organic/eng_yuki_top.htm

유기농산물의 日本農林規格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inshitu/organic/eng_yuki_59.pdf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inshitu/organic/eng_yuki_60.pdf

유기식품의 검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www.maff.go.jp/shshiki/syokuhin/hinshitu/organic/eng_yuki_qa.pdf

III. 일본농림규격(JAS) 유기식품을 어떻게 일본에 수출하나?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식품을 일본에 수출코자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 등록외국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식품 인증서를 획득한다. 해외에 있는 인증기관은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외국인증기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호주 인증기관이 등록외국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ICS, QAI, OCIA와 같이 해외에 있는 일본의 지점들은 일본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둘째, 등록된 수입상을 통해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국은 유기농산물의 규격을 포함하여 일본농림규격과 동등한 등급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1년 3월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일본농림규격과 동등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나라에 있는 생산자와 가공업자는 그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그들 나라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그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등록인증기관은 계약된 인증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그들 자신들의 계약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 기록을 근거로 수출국의 외국 생산자나 제조업자를 승인한다.

일본에 유기식품을 수출코자 할 때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성의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inshitu/organic/eng_yuki_how.pdf

그러나 인증기관이나 수출입업자들은 투명치 않은 제도를 운용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등록인증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 51개의 등록인증기관 중 약 9개소는 해외 등록을 취급하기 위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AFAS 등록센터는 이들 기관중의 하나이다.

IV.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완적 규격의 개발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규격은 5년 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5년 이내 약간의 조정이 예상된다. 농산물이나 농산물가공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한 유기인증은 가까운 미래에 발효된다. 축산물에 대한 유기인증은 축산물 코덱스(CODEX)에 따라 1~2년 내 일본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콜에 대한 유기인증은 2001년 3월 재무성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일본농림규격을 따르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생산한 농작물 또는 식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유기농산물보다는 “特別栽培” 농작물 또는 식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생산물들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유기농업 또는 유기축산이 존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농림규격은 유기농산물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일본 농민들 모두가 유기농업을 추구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인증제도에는 많은 지식과 노력,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농림규격이 일본의 기후나 영농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농업단체나 환경관련단체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 지부의 결성, 일본 바이오파흐(Bio Fach Japan)¹⁾의 전시 기준 설정,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ISO 14001 등은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V. 일본의 유기농업 강화를 위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 지부의 결성

1972년에 설립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전 세계 103개국에 740개의 회원조직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유기농업운동의 세계적인 우산 조직이다. 일본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활동해 왔다. 일본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들 중에는 어떤 연락망이나 연락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다.

유기농업을 촉진시키고 농민, 농산물 판매자, 인증자의 개별 분야 의견을 일본 정부나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일본에 있는 여러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식적으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를 결성하였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지역조직의 하나로써 일본 법률에 따라 법적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는 다른 국제 조직과 연계하여 범세계적인 다양한 유기농업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유기농업에 중심을 둔 일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조직은 범세계적인 유기농업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해 오염된 토양, 물, 작물의 질적 회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을 교육시키고 유기농업, 지속농업, 자원재생농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점차적인 유기농업으로의 변환을 도모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코자 노력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에 모든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범세계적인 유기농업 규격을 개발하는데 일본인과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예를 들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는 CODEX나 다른 범세계적 규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기본규격 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 파흐(Fach)란 독일어로 "분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Bio Fach"란 "생물분야"를 뜻하는 말임.

VI. 유기농업을 향한 여러 단계의 규격 제정

유기농업 및 환경농업에 대해 독자적인 기준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으로써 “일본 바이오파흐”의 전시 규격을 들 수 있다. “바이오파흐”는 독일의 뉘른베르그메세 GmbH에 의해 조직된 세계의 선도적인 유기농산물 무역박람회이다. 이는 독일의 가장 큰 유기농산물 무역박람회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1년 12월 일본에서 “일본 바이오파흐”를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바이오파흐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출품되는 모든 제품이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철저히 검사를 받게 되며 출품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검토한다. JAS유기규격은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옷감,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표준을 가지고 있는 않는 등 제한된 제품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제품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본 바이오파흐는 자체 전시 기준을 개발해야만 했다.

따라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과 회원들은 일본 바이오파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바이오파흐의 유기농업 규격은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농민들이나 사회가 현재의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지도록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일본 바이오파흐 전시 기준은 ISO 14001 또는 다른 관리체제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별재배 농민들도 포함하고 있다. 발전을 꾀하지 않는 농민이나 생산자들에게는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일본 바이오파흐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일본지부의 규격위원회는 매년 규격을 검토할 것이며 일본의 유기농업 및 지속적 농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발한 규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일본 바이오파흐 전시 규격

일반농업	특별재배농업 (저농약/무농약 재배)	환경재생농업 (저농약/무농약)	환경 및 재생농업	JAS 유기농업	유기농업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3자 인증을 받았으나 JAS에는 누락	JAS 유기농으로 인증	IFOAM 표준, ISO14001
일본 바이오파흐에 전시 허용					

Ⅶ. AFAS-SEQ 체계 : 농산물에 대한 ISO 14001

“(株)農業食品監査システム(AFAS)”과 자회사인 “AFAS 인증센터”는 농민이나 사회가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른 기구를 개발하고 있다. JAS유기규격은 유기농업 운동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기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당초의 목표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환경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일본 농민들은 JAS유기규격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규격은 유럽의 영농에 바탕을 두고 설정되었으며 일본과 같이 다습하고 병충해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업을 촉진시키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AFAS-SEQ 제도는 이러한 목적에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계획-수행-확인-실행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에 ISO 14001 기법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안전성 면에서 AFAS-SEQ 제도는 생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양, 작물, 용수 중 농약 잔류를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환경 면에서 AFAS-SEQ 제도는 생산자는 그들이 직접 지불하지 않는 생태파괴 비용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 측면에서 그들의 생산활동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제품의 품질 면에서 AFAS-SEQ 제도는 유기농산물의 경우 일본농립규격과 같이 생산자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AFAS-SEQ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가능하다.

첫째, 생산자는 유기농업, 저농약생산, 무농약생산에 관한 그들 자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채용함에 있어 무농약 또는 저농약재배 농민이나 식품가공업자들은 먼저 그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特別栽培 農産物” 인증을 획득한 다음 JAS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생산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비록 과도한 농용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농이나 식품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의하여 유기농업 또는 지속적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가 가능하다.

셋째, JAS유기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생산자는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보다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농 및 생산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넷째, 이 제도는 ISO 규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ISO 14001, ISO 9001, 危害管理制度(HACCP) 및 기타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연락처 :

(株)農業食品監査システム(Agriculture and Foods Audit System Co. Ltd.)

주 소 : 日本 東京都 中央區 銀座 5-10-13 東洋精米機 빌딩3층
Ⓣ104-0061
전 화 : 813-3572-1103
팩 스 : 813-3569-0778
전자메일 : info@jseq.org
웹 주 소 : <http://www.jseq.org/afas/>

AFAS認證센터(AFAS Certification Center Co. Ltd.)

주 소 : 日本 東京都 中央區 銀座 5-10-13 東洋精米機 빌딩3층
Ⓣ104-0061
전 화 : 813-3569-7370
팩 스 : 813-3569-7369
전자메일 : info@afasseq.com
웹 주 소 : <http://www.afasseq.com>